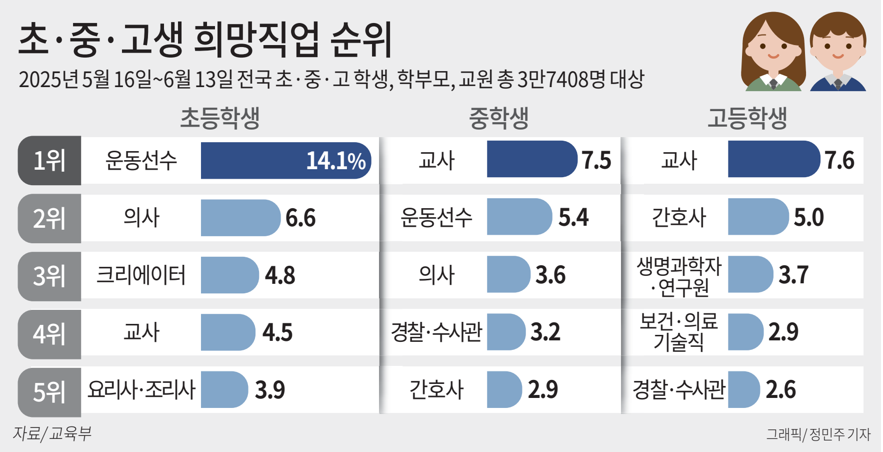
중·고교생이 가장 하고싶은 직업은?… '교사' 11년째 1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 '운동선수'
고등학생 '생명과학자·연구원' 순위
지난해보다 4계단 올라 3위 차지



중·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여전히 교사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3위로 4계단 올랐다.

27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만74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2911명 중 1만6145명(70.5%)으로, 초등학생 5357명, 중학생 5110명, 고등학생 5678명이었다.

희망직업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1위 운동선수(14.1%), 2위 의사(6.6%), 크리에이터(4.8%) ▲중학생은 1위 교사(7.5%), 2위 운동선수(5.4%), 의사(3.6%) ▲고등학생은 1위 교사(7.6%), 2위 간호사(5.0%), 3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 순이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순위는 운동선수(14.1%)로, 2018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특히 남학생 중 운동선수 선호가 22.5%로, 여학생(5.9%) 대비 크게 높았다.

2위는 의사(6.6%), 3위는 크리에이터(4.8%)였다. 크리에이터는 2024년 교사를 밀어내고 3위로 오른 뒤, 2년 연속 순위를 지켰다. 교사(4.5%)는 4위를 유지했다.

중·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였다. 국가 승인통계가 된 2025년 이래 11년째 1위를 지켰으며, 올해 '교사' 희망 비율은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중 6.8→7.5%, 고 6.9→7.6%)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의 성별에서 상위 5개 직업에 포함됐다.

중학생 2위는 운동선수(5.4%), 3위는 의사(3.6%)로 전년도와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었다. 2023년까지 2위 의사, 3위 운동선수 순이었으나, 2024년부터 2년 연속 2위 운동선수, 3위 의사 순이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7위)보다 상승해 3위를 차지했으며, 10위 밖에 있던 보건·의료분야 기술직도 4위로 크게 올랐다. 반면 군인은 3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초·중학생은 소폭 하락(초 4.08→4.05점, 중 3.74→3.73점)했고, 고등학생은 3.67점에서 3.75점으로 증가했다.

진로 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0점, 중 3.89점)',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91점)'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3.7%, 중 87.4%, 고 88.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2023년 77.3%에서 2024년 66.5%, 2025년 64.9%로 연속 감소한 반면, '취업 희망' 비율은 2024년 13.3%에서 올해 15.6%로 증가하고 '진로 미결정' 비율은 12.0%에서 11.2%로 감소했다.

중학생의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희망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미진학은 2.1%, 진로 미결정은 6.8%로 집계됐다.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진로전담교사 모두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을 주로 꼽았으며, 이어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순으로 응답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적용, 인공지능의 발전 등 교육 변화를 반영해 학교 진로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진로활동과 교원 역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게 초·중등 진로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구로초, IB PYP 월드스쿨 인증 획득

〈국제바칼로레아 초등 교육과정〉

서울 첫 IB 인증학교로 혁신 실현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 계획

서울 지역 공교육 현장에 국제바칼로레아(IB) 초등 교육과정이 본격 도입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구로초등학교(교장 김정순)가 이날 서울지역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 초등 교육과정(PYP) 월드스쿨(World School) 인증을 획득했다.

IB PYP 인증학교는 IB 본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IB 초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국가 교육과정에 PYP 프레임워크를 접목해 탐구단원과 학교별 탐구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습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성장중심평가를 적용한다. 교수언어는 자국어인 한글이며 학교 전반 운영에도 IB 체제를 반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 개발을 위해 2022년 하반기 IB 자문·연구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31개 학교(초 15교, 중 16교)를 IB 탐색학교로 지정했다. 2025년 현재 IB 관심·후보·인증학교는 총 114곳(초 58교, 중 41교, 고 15교)으로 확대됐다.

서울구로초는 2023년 IB 탐색학교 운영과 IB 관심학교 등록을 시작으로, 2024년 IB 후보학교 승인을 거쳐 올해 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게 됐다. 학교는 IB 탐구 프로그램(POI)과 '구로 WISER 탐구모형'을 기반으로 IB 프레임워크와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수·학습 모델을 구축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IB 중학교(MYP)와 고등학교(DP)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IB 단계별 연수(입문·기초·기본·심화), 연구학교 지정, 정책연구 등을 통해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의 이론적 기반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첫 IB 인증학교인 서울구로초가 학교 단위 수업·평가 혁신 모델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 특색 속에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 구축의 초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판교 그래비티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팹리스인의 날'. /성남시

성남시, 'K-팹리스 테크포럼' 열어

최신 기술 공유, 기업 협력 확대

성남시는 26일 오후 판교 그래비티 조선호텔에서 '2025 K-팹리스 테크포럼 및 제3회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성남시 주최, 한국팹리스산업협회(KFIA)·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동 주관으로 국내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 협력을 목표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KFIA·KETI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 매칭, 공동 R&D,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집적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테크포럼에는 암코리아, 시놉시스코리아, 지멘스 EDA 코리아, 케이던스코리아 등 글로벌 EDA·IP 기업이 참여해 AI 기반 설계기술과 차세대 IP 동향을 발표했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이어 열린 '제3회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 발전 유공자 16명에게 부총리·장관·성남시장·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허위광고·무자격 중개' 의혹 부동산 집중조사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부터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등 적발

"수도권 빌라 1억대 매물"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자격도 없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긴 채 안내와 상담을 도맡아온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관외 지역의 매물을 대량으로 등록해 놓고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물장(의뢰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자, 시는 해당 등록관청인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오피스는 비워둔 채 부동산 플랫폼에 게재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안내·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위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광고를 직접 게시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현진 기자

양주시, 서울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내년 하반기 운행 시작 예정

양주시가 지역 교통 숙원사업이었던 서울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노선선정 심의위원회는 양주~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포함한 9개 신규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에 이어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

그동안 양주시는 강남권 직행 노선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9월에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남권 광역노선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신규 노선은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를 경유한 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통해 신사역, 논현역을 지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차량 8대가 투입돼 하루 28회 운행하며, 노선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기존 G1300번, G1306번의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